

재일한인 디아스포라 2세 배중도의 민족정체성의 변화와 식민자 2세 고바야시 마사루*

조 현 미**

本論文では、在日ディアスポラ2世である裴重度にとって祖国や民族のもつ意味を植民者2世小林勝との関係を中心に分析している。朝鮮人であるがゆえに貧しさや就職の差別を宿命として受け取らざるを得なかった裴重度は自分の民族に対して強い葛藤を感じ、日本名で暮らしていた。一方、朝鮮人に会おう際、自分が個人ではなく日本を代表する者になら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切実な思いで生きていた植民者2世小林が限りなく繰り返した命題'俺は何者か'はそのまま裴重度に投ざれていく。民族に対する否定的なイメージの総体としての'朝鮮人'から脱したかった裴重度はその時まで自分の虚像である日本名を名乗っていたが、小林との出会いは'俺は何者か'、'祖国は何か'を絶えず繰り返しながら民族名で堂々とした生きた方のターニング・ポイントになった。それから彼の民族活動家としての道がはじまるのである。

キーワード：在日ディアスポラ、植民者、民族、祖国、日本名、裴重度、小林勝(재일한인 디아스포라, 식민자, 민족, 조국, 일본이름, 배중도, 고바야시 마사루)

1. 머리말

본국을 떠나 생활하는 디아스포라에게 있어서의 자아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개인을 둘러싼 민족의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재일한인¹⁾은 식민자(植民者)의 국가에서 식민지인(植民地人)이었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0-B00118).

이 논문은 2012학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부교수

1) 재일한인들의 거주역사는 짧게 보더라도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70년이 흘렀

던 민족이 소수자로서 정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다른 디아스포라들과는 차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식민자가 식민지인을 인식하는 방식은 그들을 부르는 명칭과 그들을 대하는 태도로서 투사되고, 그 투사는 식민지인들의 정체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미지는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인식의 양태에 의해 창조되는 것²⁾이라는 점에서 볼 때, 원래는 한국인, 조선인을 뜻하는 '조센징'이라는 명칭이 차별과 멸시의 용어로 사용됨으로서 그 안에 역사적인 인식과 사회적인 의미가 총체적으로 포함된 형태로 재일한인들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일본인들의 이미지가 투사되어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인이 부여한 부정적인 이미지의 구체적인 투사 형태로서의 '조센징'이라는 명칭은 투사의 강도에 따라 재일한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직접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디아스포라의 경우, 자신을 둘러싸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자아의 정체성은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일한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이 타자와의 관계에서 변화되는 양상을 주로 그들이 사용하는 이름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름은 자신의 존재 그 자체, 자신의 실체를 단적으로 표명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분석대상으로는 재일한인 디아스포라 2세 배중도와,³⁾ 그에게 영향을 미친 타자로 식민자 2세⁴⁾ 문학가인 고바야시 마사루(小林勝)를 선정하였다. 배중도를 연구대상으로 선

다. 그 사이에 그들을 부르는 명칭은 부르는 주체와 상황에 따라서 '재일동포', '재일교포',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 '조센징' 등으로 다양하였고, 불림을 받는 당사자도 자신들의 자아에 따라 그 이름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해왔다. 본고에서는 일제 식민지시기,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이전의 한반도와 한민족에 대해서는 조선과 조선인으로, 해방이후 한국적과 북한적의 구분 없이 총체적으로 한민족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조선인이 사용되었던 시기의 내용일 경우에는 조선인으로, 그 이외에는 재일한인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인용문의 경우에는 원문에서 사용된 그대로 제시하였다.

2) 이옥순(2002) 『우리안의 오리엔탈리즘』 p.26.

3) 배중도씨의 실명을 표기하는데 본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밝힌다.

4) 식민자 2세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연구자들에 따라 조금씩 차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제국시대 일본의 외지 또는 식민지에서 출생하여 그 곳에서 유소년기를 보냈거나, 내지에서 출생은 하였으나 유소년기의 대부분을 외지 또는 식민지에서 보낸 일본인 식민자들을 칭한다.(최준호(2011) 「고바야시 마사루의 식민지 조선 인식」 『일본어문학』48, p.140)

정한 이유는 그에게서 디아스포라 2세로서의 전형적인 삶의 형태와 민족적 갈등이 잘 나타나고 있으며, 청년기 이후 본격적인 민족운동가로서의 삶⁵⁾으로의 전향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가 겪은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소외, 그리고 또한 적응과 반발에서 거의 모든 디아스포라로서의 재일한인이 겪는 삶의 양상을 고스란히 예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개인의 삶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이 재일한인을 비롯한 외국인주민에 대한 권리가 제도적으로 가장 잘 정비된 선구적인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준 재일한인 1세대 민족운동가 중 한명이면서 현재까지 다문화공생정책 실현 현장의 지도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민족운동가로서의 삶을 선택하기까지 영향을 주고받은 많은 인물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주제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고바야시 마사루를 선정한 이유는 배중도와는 반대로 어린 시절을 식민지로서 식민지조선에서 보냈고, 일본의 패전과 함께 귀국하여 일본에서 살면서 식민지인이었던 재일한인들과의 만남을 계기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뇌했다는 점, 그리고 두 상반되는 입장의 인물의 조우가 서로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배중도의 경우, 연구자와의 심층면담 내용을 분석하였다. 배중도와는 면담은 2012년 2월 21일에서 24일까지 4회에 걸쳐 1회 평균 2~3시간동안 가와사키시(川崎市)의 후레아이관(ふれあい館)과 배중도의 자택에서 이루어졌다. 면담방식은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의 민족운동가로서의 삶에 영향을 준 인물과 사건을 주제로 자유로이 회상하도록 유도하는 자유면담방식을 이용하였고, 대화내용은 모두 녹취하여 전사하였다. 전사한 내용은 한글로 번역하여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또한 대화내용과 관련되는 자료들도 가능한 한 모두 촬영하였다. 그리고 고바

5) 배중도의 민족운동가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조현미·이현철(2013) 「민족운동가 배중도의 내러티브를 통한 재일한인 1세대 디아스포라의 삶과 애환」 『일본어문학』 61, pp.611-613을 참고하기 바란다.

야시 마사루의 경우에는 주로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조선과 조선인을 분석한다. 고바야시는 조선이란 무엇인가를 평생의 테마로 삼아 치열하게 고뇌한 매우 이색적인 작가로서 일본의 작가를 통틀어 고바야시만큼 조선에 집착하면서, 조선을 주제로 삼아 창작활동을 한 작가는 없다⁶⁾고 평가되는 작가이지만, 국내에 소개된 그의 작품집은 2007년 번역되어 발간된 『쪽발이』가 유일하며, 그이외의 그의 작품은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서점과 도서관에서도 검색할 수가 없다. 단지 그의 작품과 인물에 대한 분석이 소수의 한국과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을 뿐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쪽발이』에 수록된 「쪽발이」 「가교」 「이름 없는 기수들」 「눈 없는 머리」의 4개의 작품과 지은이의 글에 수록된 에세이 「나의 조선」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그와 함께 고바야시 마사루의 문학을 연구한 논문들에서 제시된 인용문들을 재분석하였다.

2. 디아스포라 2세 배중도에게 있어서의 민족

2.1. 어린시절의 가난과 차별

재일한인 1세의 대다수는 특별한 기술이 없이 막노동을 하며 살아갔고, 일본인들과 비교하여 빈곤한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다. 배중도의 부모 역시 아버지는 막노동, 어머니는 고철 줍기, 고물상의 잡역부, 암시장에서의 쌀의 밀매 등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면서 6명의 자녀를 키웠다.⁷⁾ 장남인 배중도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 학업과 함께 갖은 꾀은일을 하면서 집안을 도왔다.

6) 이원희(2001) 「고바야시 마사루 문학에 나타난 식민지 조선」 『일어일문학연구』 38, 한국일어일문학회, p.230.

7) 배중도의 부모님의 삶에 관해서는 조현미·이현철(2013) 전계서 참조

나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신문배달도 했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중학교시절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수구 같은 것을 혼자서 파는, 옛날에는 하수시설 같은 것이 발달 안되었으니까 그곳으로 물을 흘려 넣어서 지하로 흘려보냈습니다. 7~8미터정도 되는 구멍을 혼자서 팠습니다. 중학생인 내가.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고철을 주우러 다니고, 야채 가게에서 버리는 야채 잎사귀를 받아와서 먹던 어린 배중도에게 일본인 아이들은 ‘조센징’이라고 놀려대었다. ‘조센징’은 앞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조선인이라는 문자 상의 의미를 넘어 가난하고 하등한 식민지민, 일본인보다 열등한 민족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과거에서 현재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한일간의 역사적인 과정과 의미를 모두 담은 상징적인 용어로서 통용되었고, 아이들도 이미 그러한 용어의 의미를 잘 간파하고 있었다. 그렇게 배중도의 기억 속의 재일한인과 그의 가족의 삶은 가난 그 자체였고, 가난은 ‘조센징’이라는 차별과 멸시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했다. 일본인 아이들의 놀림은 이름을 두고도 이어졌다.

‘하이(배)’ 라고 하는 것은 일본어의 대답과 같지요? ‘하이’는 그러니까…. ‘하이, 하이, 하이’ 라고 놀림 당했습니다. 나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왜?” 하고 물으면 “네가 아니야. (‘하이’ 하고) 대답한 것뿐이야” (라고 놀리곤 했습니다).

그의 차별에 대한 대응은 행동으로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싸움으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게 되었다. 그는 중학교 입학식 날에도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싸웠고,⁸⁾ 자연스럽게 그 명성이 퍼져갔다. 그런데 일본인학생들은 평소에는 그를 동료(仲間)로 넣어주지 않았지만, 학교별로 패싸움이 벌어질 때와 같이 힘이 필요할 때에는 같은

8) 싸움의 원인은 한 학생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어이, 조센징!’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조센징’이라는 호칭으로 나타난 식민자들의 재일한인에 대한 투사의 의미가 배중도의 감정을 자극한 것이다. 결국 이때의 ‘조센징’이라는 호칭은 재일한인에 대한 지독한 부정으로 상호간에 전달된 것이다.

동료라며 부르러 오곤 했다.

어느 조센징이 있는데, 싸움이 센 녀석이라는 소문이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학교(분위기)가 거칠었던 시대였으니까 학교단위로 싸움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나에게 같이 가자고 권하러 오는 것입니다. 함께 동료가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그리고 배중도는 ‘조센징’이라는 놀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서의 싸움과 함께, 놀림을 회피하고자하는 소극적인 대응으로서 중학교부터 일본식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한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5학년을 상대로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에는 이제 ‘하이 시게노리’를 사용하는 것은 싫다고, 놀림당하니까, 그래서 중학교 들어갈 때 일본명을 썼습니다. 타케모토(武本)라고. 지금도 거의 무사의 무(武)자를 쓰고 있는 타케모토라는 사람은 거의 襲家입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 선조가…, 나는 분성(盆城) 배씨 입니다만, 그 배씨의 선조 있는 곳(사당)을 가보면, 편액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그 액자 같은…. (그곳에) 무훈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성 배씨는 타케모토를 쓰자고 되어서 분성 배씨는 대부분이 타케모토를 사용합니다.

‘하이 시게노리’라고 했을 때의 ‘하이’가 배(裴)를 일본음으로 읽은 것이지만, ‘배’라는 姓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과 그것을 일본식의 성으로 아예 바꾸어서 부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도 일본에서도 일본식으로 창씨개명을 할 경우, 대부분의 우리 민족들은 자신의 본관이나 고향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일본식 성을 만들었고, 그것이 그나마 자신들의 실재를, 그리고 존재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2.2 취업차별

배중도가 중학교를 졸업할 즈음인 1950년대 말의 일본은 패전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겪은 후 한국전쟁으로 급속하게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패전직후에는 제대한 군인들과 해외로부터의 귀국자들이 노동시장으로 물리게 됨으로서 경쟁에서 뒤쳐진 많은 조선인노동자들은 일용직이나 단순육체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지만, 경기가 급속하게 좋아진 50년대 말에도 재일한인들의 여건은 그다지 변함이 없었다.⁹⁾ 당시에 중학교졸업생들은 특히 좋은 노동력으로서 선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일한인들은 민족적인 이유로 좀처럼 취업할 수가 없었다.

56년인가 57년이었습니다. (그때에) 10여 군데 시험을 쳤습니다. 그때는 아직 중학생, 중졸의 아이라는 것은 노동력으로 말하자면 거의 황금알¹⁰⁾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값싼 노동력으로 채용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집단취직이 시작되기 조금 전의 이야기입니다. 큰 기업은 중졸의 성적이 좋은 아이를 채용해서 '양성고(養成高)'라고 즉, (어릴 때부터) 양성을 해서 자신의 회사의 공원(工員)으로 만들어가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양성고'에 들어가면 고등학교의 졸업자격을 딸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양성고에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해서 여러 군데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은 대체적으로 먼저 필기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는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면접할 때 서류에다가 전부 본명, 민족이름으로 썼습니다. 본적지도 썼습니다. 거기서 그걸 보고 모두 자신이 조선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거죠. 그래도 말하는 것은 거의 일본어로 했습니다. 그런데 면접관이 '자네도 결국 언젠가는 조선에 돌아갈건가' 라고 질문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였지만, 취업 등에 필요한

9) 曹賢美(1998) 『在日韓国・朝鮮人の集住地域の形成と実態』お茶の水女子大学博士論文、p.25.

10) 장래가 기대되는 젊은이라는 뜻으로 당시에 사용되었던 속어.

서류에는 본적지를 기재하여야만 하였고, 그렇게 되면 조선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수밖에 없으므로 그는 아예 처음부터 본명을 기재하였던 것 같다.¹¹⁾ 결국 대부분의 동급생들이 취업을 하거나 양성고로 진학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취업에 실패하는 배중도에게 학교의 취업담당교사는 심지어 “타케모토는 취업을 포기하고 리어카에 야채를 싣고 다니면서 파는 것이 좋겠다.”는 말까지 하였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듣고도 화도 나지 않았을 정도로 민족적인 이유로 취업을 하기가 어려운 처지라는 것을 그는 더욱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2.3 디아스포라와 민족, 공동체

디아스포라로서의 정착초기에는 공통적으로 같은 민족 집단끼리 특정지역에 밀집하여 거주하면서 취업과 생활에 대한 정보교환과 강한 결속력으로서 맺어진 상호부조를 특징으로 하는 지역공동체가 형성된다. 그리고 그렇게 이주사회의 다수민족들과는 분리되고 격리된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집단은 같은 공동체로서의 의식을 강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어린 시절 배중도는 이웃의 재일한인들을 모두 친척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조선인은 거의가 친척 같은, 그러니까 나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조선인은 모두 친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조센징’이라는 놀림 가운데에서도 가난한 동포들 간의 상호부조, 아버지의 조국과 고향에 대한 애착과 민족 조직에서의 활동은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자신이 재일한인이라는 사실

11) 취업에 있어서의 민족차별은 공식적으로는 사라진 듯 하지만 아직까지 일본사회에 뿌리 깊이 남아있다. 취업 시, 면접서류에 기재된 본적지를 보고 채용을 취소하였다하여 발생한 1970년 ‘히타치 취업차별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배중도는 히타치취업차별사건의 해결을 위한 ‘히타치 소송’을 일으키고 결국 승소로 이끌어낸 중심인물 중 한 명이다.

을 항상 자각하게끔 해주었다.

전쟁이 끝났었던가? 끝나기 직전에 시모키타자와(下北澤)에 살았습니다. 그 좀 전에 아버지는 조련(朝連: 在日本朝鮮人聯盟)에 가맹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련(總連: 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의 전신인 조련의 청년부에, 아버지가 조련의 오모리지부(大森支部)의 단기(團旗) 옆에서 사진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 그러니까 민족단체라고 하는 것은 최초는 조련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련시대에는 좌(左)도 우(右)도 함께였습니다. 그래도 속에는 역시 좌파 우파가 있었읍니다만. 조련의 청년부라는 것은 어디냐고 하면 좌파에 가까웠습니다. 행동대원 부류였으니까...

아버지는 고향과 친족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분으로, 5형제 중 4번째이면서도 일본에 있는 형제들의 족보를 자신이 전부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향에도 수차례 직접 가서 조상묘를 정비하였고, 아들들을 데려가서 보여주기도 했다.

우리형제가 전부 취직한 후에, 그때도 어머니는 일하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종종 한국에 가서, 친척들의 묘지를 전부 정비했습니다. 내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아버지는 나를 산소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누구의 산소이고 여기는 누구의 산소라고... 나중에는 어디가 어딘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만. 무덤의 형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는 이것은 누구누구의 묘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족보정리도 아버지가 했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가르쳐준 조상의 묘를 전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아버지의 민족과 조국, 그리고 친족에 대한 애정은 그의 의식 속에 남아있었다.

2.4 고바야시 마사루와의 만남

결국 중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도, 양성고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한 배중도는 2년간 공사장을 전전하면서 막노동을 하게 된다. 그 후 외삼촌집에서 더부살이하면서 야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야간대학에 입학하는데,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에도 ‘조센징은 먹고살기 위해서는 기술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아버지의 의견에 따라 일반고가 아닌 전기관련의 직업고등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대학도 같은 계통인 동경전기대학(東京電機大学)으로 입학하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적성과 무관한 전공의 선택으로 회의를 느끼다가 자퇴하고 가출하고 만다.

고등학교 정도 레벨의 전기라면 따라갈 수 있겠는데 대학이라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있다던지, 좋아해서가 아니라 일을 위해서 그 학교에 가게 된 거니까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과계통을 생각했지만 문과계통의 대학에 가도 별로 취직에 도움이 되지 않고, 먹고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재미가 없었습니다. 재미없었기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중퇴했죠. 그리고 중퇴를 하는 것과 동시에 가출을 했습니다. 집이 싫어졌습니다. (부모님이)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밖에 없는 취업의 한계, 그로 인해 선택해야했던 적성에 맞지 않는 전공, 그리고 어깨를 짓누르는 헤어날 길 없는 가난에 허덕이는 가정의 장남이라는 무게에 더하여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부모님의 부부싸움¹²⁾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방황으로 이어졌고, 결국은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떠나 일본 전국을 떠돌아다니게 만들었다. 그의 가출과 방황은 결국 피식민지

12) 부모님은 정말 많이 싸웠다. 그것도 격렬하게. 그는 싸움의 원인이 무능한 가장인 아버지의 경제적인 무책임감과 도박, 어머니의 가족들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노력이 서로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가정불화는 제일한인 1세대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했다. 여기에 관해서는 조현미·이현철(2013) 전계서, pp.621-624를 참조하기 바란다.

민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으면서, 가난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재일한인 디아스포라 청년의 갈등과 혼란의 표출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그의 인생에 획기적인 선을 긋게 되는 인물과 조우하게 된다.

대학도 계속 다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쪽의 대학이었다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이공계의 공부도 재미없었고, 집도 재미없었고 자신의 장래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일하면서 야간대학에 다녔을 때 일본인의 그룹, 동인지(同人誌) 같은 곳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일본 좌익문학의 기수인 고바야시 마사루(小林勝)라든지 노마 히로시(野間宏)¹³⁾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선생 역할을 하는 그룹이었습니다. 동인지의 그룹... 그런 곳에 얼굴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바야시 마사루로부터 “너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말과 “자신과 마주보아야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 ‘이제 조선인은 싫다. 도망가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조선인이라는 사실은 숨길 수 없는 진실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갈등으로 인해 집을 나와서 방랑의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자아 찾기도 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던 중에도 동인지에서 함께 활동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계속했던 그는 1년간의 방랑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는 일본이름으로 일본인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다. 일본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자신의 뿌리를 알아야겠다는 생각, 조국과 모국어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는 식민자의 나라 한 북판에서 2·8독립선언을 외쳤던 기념비적인 장소인 동경 한국 YMCA(현재의 재

13) 野間宏(1915.2.23~1991.1.2). 일본문학사에서 전후문학의 효시로 기록되고 있으며, 사회전체의 구조를 다룬 전체소설을 지향했다. 말년까지 사회적 발언을 많이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대표작으로는 『暗い絵』(1946年) 『崩解感覚』(1948年) 『真空地帯』(1952年) 등이 있다.

일본 한국 YMCA)¹⁴⁾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어 배우고 조국에 관한 서적을 탐독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민족운동가로서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서 자신의 이름 ‘배중도’를 사용한다.

3. 고바야시 마사루에게 있어서의 조선, 조선인

3.1 고바야시 마사루의 생애와 문학세계

고바야시 마사루(小林勝)는 1927년, 경상남도 진주 농림학교의 생물교사로 재직 중이던 아버지 고바야시 도키히로(小林時弘)의 셋째아들로 진주에서 태어났다. 1944년 대구중학교 4학년을 수료하고 1945년 3월 육군 항공사관학교에 입학하지만 8월에 일본의 패전으로 귀향했다. 16년간 한국에서의 생활은 그가 1971년 사망하기까지의 44년이라는 짧은 인생에서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1957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한 「일본인중학교」 「태백산맥」 「붉은 민둥산」 「포드 1927년」 「가교」 「쪽발이」 등의 거의 모든 작품들이 식민지하의 조선이 무대이거나 일본에서의 피식민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조선인들이 주요등장인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¹⁵⁾. 이렇게 일본인에게 있어서 ‘조선이란 무엇인가’를 평생의 주제로 삼아 치열하게 고뇌한 이색적인 작가였던¹⁶⁾ 고바야시는 공산주의자로서 한국전쟁에서 맞 본 패배의 체험과 식민자 2세라는 스티그마(stigma)를 창조의 양식으로 삼았던바, 한국과의 대면을 피해오던 전후 일본문학사에 ‘질과 양의 측면 모두에서 발

14) 재일본 한국YMCA회관은 도쿄 내의 독도와 같은 곳으로 1906년 창립이후 한국 단체의 소유권이 유지되어 온 유일한 곳이다. 조국의 수난기 때 기독교 신앙으로 지도자를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창립됐다. 당시 독립을 열망하는 유학생의 인격형성의 장이자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었으며, 이는 1919년 3·1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된 2·8 독립선언의 기폭제가 되었다.

15) 고바야시 마사루 지음, 이원희 옮김(2007) 『쪽발이』 p.318.

16) 고바야시 마사루 지음, 이원희 옮김(2007) 『쪽발이』 p.314.

군'이라고 평가되는 문학을 남겼다.¹⁷⁾ 한편 고바야시의 문학은 일본문학계에서 '자기혐오와 수치의 문학'이었다고도 평가받고 있는데,¹⁸⁾ '자기혐오와 수치'의 원점은 일본이 식민지 지배한 조선에서의 소년기체험이었다. 문학은 한 시대의 정신적 기후와 풍경을 반영할 뿐 아니라, 상상 혹은 현실세계를 창조하는 중요한 재현수단으로서,¹⁹⁾ '자(自)'와 '타자(他者)', '우리'와 '그들'의 경계를 구성하는 상징이나 이정표로 기능하는 이미지는 상상력의 소산인 소설 등의 문학작품을 통해 가장 널리 재현되고 재생산된다. 그러한 점에서 고바야시의 문학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자아관과 타자관은 고바야시 자신의 그것이 그대로 투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2 식민자 2세 소년의 눈에 비친 조선과 조선인

1927년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난 고바야시는 어린 시절을 진주에서 보낸 경험을 바탕으로 1956년에 경상도 산골마을을 무대로 한 「포드 1927」을 발표한다.²⁰⁾ 당시의 한반도는 1920년부터 시작된 식민정부의 '산미증식계획'²¹⁾에 의해 농촌경제가 악화일로에

17) 磯貝治良(1982) 「原風景としての朝鮮」『季刊三千里』29, p.208.

18) 위키피디아 2013.12.28. 검색. <http://ja.wikipedia.org>

19) 이옥순(2002) 『우리안의 오리엔탈리즘』 p.33.

20) 『新日本文学』5월호에 게재된 「포드 1927」은 아쿠다가와상(芥川賞) 후보작이 된다.

21) 産米増殖計劃. 일제가 조선을 일본의 식량공급지로 만들기 위해 1920년부터 실시한 식민지 농업정책.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일본은 국내 자본주의가 급속히 발전한 반면, 농업생산력은 급격히 떨어져 1918년에는 대규모의 쌀 폭동이 일어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일제는 조선에서의 식량증산으로 자국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25년까지 개량 예정 토지 16만 5천 정보 중 59%인 9만 7천 5백 정보의 개량에 그쳤다. 실패원인은 일본경제의 불황으로 인해 비용조달이 원활치 못했고, 일본자본이 토지개량보다는 이윤이 더 큰 토지구입에 적극적이었던 때문이다. 그리하여 일제는 1926~33년까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2차 계획을 실시, 예정면적 35만 정보의 47%인 약 16만 5천 정보의 수리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쌀 수출이 급증하고 30년 농업공황으로 쌀 가격이 하락하자 일본 국내의 반발에 부딪쳐, 33년을 마지막으로 산미증식계획은 중단되었다(한국근현대사사전, 2013.12.29.검색)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19897&cid=829&categoryId=829>

있었고, 영세한 조선인토지소유자의 몰락과 일본인 지주의 증가로 인해 피폐할 대로 피폐된 고향을 버리고 떠나는 농민들이 증가하는 시기였다.²²⁾ 하지만 일본인들은 토지의 대지주로서, 상권의 장악자로서, 그리고 식민정부의 관료로서 이른바 사회적 상류계층을 형성하고 있었고, 고바야시의 아버지도 역시 농림학교 교사로서 비교적 부유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였다.²³⁾ 그리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조선인 인력의 사용을 당연시하였던 것이 고바야시가 자란 환경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여유로운 생활의 터전에서 한결음 밖으로 나가면 빈곤한 조선인들의 열악한 환경에 조우했다. 그의 어린 시절, 조선에서 보고 듣고, 그리고 느꼈던 광경은 「쪽발이」 「포드 1927」 등의 작품 속에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

나는 철들면서부터 조선인은 불결하다, 조선인은 더럽다고 느끼고 있었다. 전에 살았던 산골마을집 근처에는 조선인들의 작은 초가가 빼곡하게 밀집되어 있었다. 여름이 되면 아이들은 상의만 입고 엉덩이를 드러낸 채 땅바닥에서 놀고 있었다. 밤이 되면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 흙으로 너무 더러워졌으면 엄마가 엉덩이를 때리고 수건인지 걸레인지 구별이 안가는 천으로 엉덩이를 닦아주는 것이다. 나는 조선인은 더럽다고 생각했다. 아이들도 더럽다, 어른도 더럽다, 손으로 코를 풀고는 그 손을 씻지도 않고 밥을 먹는다.²⁴⁾

그리고 경상도 산골마을에서 살고 있던 주인공이 막연하게 느끼고 있었던 조선과 조선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대도시인 대구에서 살고 있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일본인 중학교」에서는 점차 심화되어

22) 曹賢美(1998) 『在日韓国・朝鮮人の集住地域の形成と実態』お茶の水女子大学博士論文, pp.18-19.

23) 고바야시의 아버지는 식민지수당을 포함하여 일본의 같은 직종의 종사자보다 더 많은 액수의 월급을 받았다. 그 위에 인건비가 턱도 없이 싼 식민지였으므로 가정부(女中)는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었다(齋藤孝(1984) 「小林勝と朝鮮一つの思いで」 『季刊三千里』 p.15).

24) 고바야시 마사루 지음, 이원희 옮김(2007) 「쪽발이」 『쪽발이』 p.50.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작가 자신의 중학교시절의 경험을 묘사한 작품『일본인중학교』에서는 주인공인 중학교 3학년 고로(五郎)가 느꼈던, 당시에 그 학교로 부임한 젊고 세련된 신입영어교사 우메하라 겐타(梅原健太)²⁵⁾에 대한 기억이 묘사되어 있다.

“우메하라 선생님은 … 조선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던데…” 이 말을 들었을 때 고로는 차가운 쇳주먹이 그의 어린 심장을 때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어안이 병병했지만 가까스로 되물었다. “누가 말했어, 그런 잔인한 말…”(잔인한 말, 고로에게는 진실로 그랬다)²⁶⁾

이렇게 고바야시의 어린 시절 기억 속에서의 조선인은 열등하고 비참하고 추악한 존재였으며, 그러한 존재로 인식됨은 잔인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일본인 중학교』의 신입교원 우메하라의 ‘건강하고 하얀 이’는 조선인이 일본인처럼 어릴 때 단 것을 그다지 먹을 수 없었기 때문이며, 치약을 살 수 없어 소금으로 이를 닦기 때문이었다.²⁷⁾ 단것을 먹을 수 없고 치약을 살 수도 없을 정도의 가난함이 오히려 하얀 이를 가지게 했다는 역설적인 논리는 결코 조선인의 긍정적인 면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의 뇌리 속에 깊이 박혀있는 조선인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며, 그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부모나 주위의 일본인 어른들의 영향으로 배양된 ‘식민자2세의 조선인관’²⁸⁾이었다.

25) 『일본인중학교』에서의 등장인물인 신입교사 우메하라는 조선인으로서 동경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식민지조선으로 다시 건너와 중학교의 영어교사로 부임한 인물이다. 고바야시 마사루는 에세이 「그렇다고 해서 안된다」에서 『일본인중학교』의 주제를 돌아보며, ‘나는 소설이나 에세이를 쓸 때마다 결코 안이하게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그 시절의 사람들을 추억한다. 이를 마지막으로 대구공립중학교에서 모습을 감춘 최씨를 기억한다’고 술회하고 있다(하라 유스케(2012) 『고바야시 마사루와 최규하』 『사이間SAI』 국제한국문화학회, p.146). 그리고 고바야시는 그 교사가 2006년 10월에 작고한 최규하 전 대통령이라고 밝혔다(고바야시 마사루지음, 이원희 옮김(2007) 전게서, p.313).

26) 하라 유스케(2012)전게서, p.146에서 인용.

27) 하라 유스케(2012)전게서, p.147에서 인용.

28) 고바야시 마사루지음, 이원희 옮김(2007) 『이름없는 기수들』 『쪽발이』 p.116.

이렇게 부정적인 조선의 이미지는 긍정적인 일본의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역할로서 기능하였으나, 때로는 소수의 우월한 지배자인 일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공간에서 조차 숨 쉬고 살아있는 조선인들에 대한 미지의 공포에 대한 무의식적인 두려움의 표출이기도 하다. 미지의 공포에 대한 두려움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낼지 모르는 조선인들의 잔인성과 폭력성으로 묘사된다. 「쪽발이」에서는 그러한 두려움이 주인공인 중학생 고노(河野)의 눈에 비친 조선인 가정부 에이코의 검둥개 페치카에 대한 잔인한 폭력으로 그려진다.

… 에이코의 몸이 정지되고 털썩하며 페치카의 큰 덩치가 땅바닥으로 내팽개쳐졌다. 페치카의 눈이 치켜 올라가고 윗입술이 말려 올라가고 이빨이 드러났다. 나는 에이코, 하고 불렀다. 또 다시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 나쁜 건 페치카야, 라고 말하며 에이코는 나에게 다가왔다. 그 눈은 여전히 기묘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내 몸에 끈적끈적 달라붙었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다가오지 마. 내 곁에 오지 마,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어찌된 셈인지 그 말은 목에서 나오지 않았다. … 너는 잔학하다, 조선인들은 어느 놈이고 간에 모두 잔학하다…. 그리고 그 말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에이코가 다가옴에 따라 몸의 떨림이 더욱 강해졌다.²⁹⁾

식민지민인 에이코의 잔인함에 대한 두려움은 일본인들의 내면에 잠재된, 식민자들의 식민지민들에 대한 불안, 소수의 지배층이 다수의 피지배층에 대해 느끼는 공포 그 자체였다. 반일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을 시기, 경상도 시골마을의 교사를 주인공으로 한 「이름 없는 기수들」에서는 식민자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근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나한테 배운 학생들은 모두 나를 잘 따르고, 가르친 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적어도 직접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29) 고바야시 마사루지음, 이원희 옮김(2007) 「쪽발이」『쪽발이』 pp.44-47.

도 조선인 집단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집단 - 그것은 내게는 괴물처럼 생각되었다. 이처럼 불안할 때는 시골마을에 정착한 것을 후회했다. 인근 도회지에 사는 일본인들이 부러웠다. 그곳에는 보병 제20사단의 지휘아래 정예 연대가 주둔하고 있다.³⁰⁾

그리고 식민자 2세로서의 소년 고바야시는 대다수의 일본인학생들과 다른없는 '황국청년'으로서의 길을 걷고 있었다.³¹⁾

3.3 의식의 변화와 문학세계

식민자 2세 소년의 눈에 비추어진 조선의 풍경은 불결했고, 그곳에 살고 있는 조선인은 빈곤하고 열등하며 잔인하였다. 하지만 그의 작품 속에서 회상하는 식민지조선의 광경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있다. 「쪽발이」에서 검둥개 폐치카에게는 잔인하기 이를 데 없었던 가정부 '에이코'가 자신의 조선이름(본명)을 절대로 알려주지 않으면서 일본이름인 '에이코'라는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했을 때 주인 공 고노는 실재하지 않는 인간을 부르는 듯한 허전함을 느낀다.

창씨개명 때문에 모든 조선인이 일본식 성명으로 바꾸어야한다고 하지만 조선옷을 입고 머리를 빗어 넘긴 그녀를 에이코라고 부를 때, 나는 실재하지 않는 인간을 향해 부르는 듯한 허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³²⁾

그에게 있어서의 조선인을 부르는 일본이름은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부정이었으며, 일본인만이 그 대상을 실재라고 믿고 있는, 혹은

30) 고바야시 마사루 지음, 이원희 옮김(2007) 「이름없는 기수들」 『쪽발이』 p.137.

31) 고바야시 마사루가 육군예과사관학교에 입학하던 당시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노트에는 “十一月三日 紀元節 遂に今日だ!! 今七時十分!! 我合格せり 涙々”과 “我陸士と突破せば必ずや航空兵となり敵アメリカ・イギリスを撃滅せん”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최준호(2011) 「고바야시 마사루의 식민지 조선 인식」 『일본어문학』 48, p.141에서 재인용)

32) 고바야시 마사루 지음, 이원희 옮김(2007) 「쪽발이」 『쪽발이』 p.41.

믿고자했던 허상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식민정부에 의해 강제로 자신들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꿔야만 했지만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부른다고 해서 그들의 실체가, 그리고 존재 그 자체가 바뀔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입신양명을 위해서 끝없이 일본인을 흉내 내고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처럼 살아가고자 했던 「이름없는 기수들」의 등장인물인 '최'가 “나는 이제 그 이름이 아니에요”라고 하며 자신을 '기시다 시즈오'라고 불러달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최'가 일본인 주인공의 집에서 목욕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일본인의 가족이라는 기분을 맛보고 싶었다”고 할 때 주인공 혼도(本堂)가 느꼈던 무겁고 우울한 기분은 조선인의 자아부정을 대면하는 식민자로서의 고바야시의 마음이었던 것이다.

식민자 2세로서 조선에서 소년기를 보낸 고바야시가 조선인들이 일본이름을 사용하고 일본인행세를 하는 모습에서 실재하는 존재의 허상을 대하는 듯한 무거운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경위는 「가교」 「이름없는 기수들」 「눈 없는 머리」 등 그의 작품들 속의 주인공들이 하나같이 조선에서 태어나고 자란 식민자 2세로서 귀향 후 조선과 조선의 역사에 대해 공부를 하고, 그리하여 조선에 대한 죄의식과 부채의식을 느끼게 되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주인공들은 공통적으로 그러한 부채의식에서 한국전쟁 반대 불법 데모를 하고, 경찰이 조선인 소학생과 중학생들에게 공격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화염병을 던지다 체포되며, '사회과학연구회' '민족문화연구모임' 등의 모임에 참여하는데, 이는 작가의 생애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고바야시에게 있어서 일본인들이 것처럼 차별하고 멸시해왔던 '조선인'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고뇌는 '식민지 조선에서의 자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였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한 끊임없는 자기 존재에 대한 성찰의 결과로서, 고바야시 자신은 그러한 성찰을 하게 된 계기를 그가 전후 일본에서 한국전쟁 당시 강제 송환되어가는 조선인 공산주의자 들이나 전후 일본의 식민주의의 잔재를 고발하는 재일조선인 문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조선인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찾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자라온 이상, 또 그 차별관의 근원인 여러 가지 차별이 사회적·정치적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강화되고 있는 이상, 자신만이 일본

역사의 울타리 밖에 있을 리는 없고, 오랜 역사와 함께 일본인 안에서 만들어진 민족적 멸시, 차별관으로부터 혼자만이 결코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고 토로한다.³³⁾ 그렇게 그는 식민자로서 식민지민에 대하여 진지하게 갈등하고 고뇌하였고, 그 고뇌로 인하여 자신의 고향이었으며 원풍경이었던 조선에 대한 안이한 향수를 거부하였지만,³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리움을 자신의 내면에 안고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일화로 1945년 3월에 육군항공사관학교에 입학했던 고바야시가 패전으로 귀향하여 입학한 도립고등학교에서 1947년~49년까지 함께 기숙사에서 생활했던 역사학자 사이토 타카시(齋藤孝)는 다음과 같이 그 당시를 회고하고 있다.

고바야시는 웅변가였다. 고바야시만이 기를 쓰며 혼자서 연신 지껓여냈는데, 모두 다 그 위세에 압도되어 버렸다. 좌중을 지배하는 사람은 항상 고바야시였다. 그리고 기분이 내키면 고바야시는 아리랑이나 도라지 등의 조선민요를 부르기 시작했다. 기숙사에서는 학생들이 청소나 세탁을 할 때 곧잘 아리랑이나 도라지를 흥얼거리게 되었다.³⁵⁾

그러나 고바야시 문학에 등장하는 일본인 주인공들은 결코 조선민요를 부르지 않았다. 일상생활에서 고바야시가 조선민요를 애창하고 있었음에도, 그의 문학에는 그와 같은 일본인의 모습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³⁶⁾ 차마 식민지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식민자로서의 회한과 고뇌에서 기인한 것이었다.³⁷⁾

33) 고바야시 마사루 지음, 이원희 옮김(2007) 「나의 조선」『쪽발이』 p.305.

34) 일본 문단에서는 고바야시의 문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小林勝の文学は「自己嫌悪と羞恥の文学」であった。「自己嫌悪と羞恥」の原点こそ、日本が植民地支配した朝鮮での少年期体験だった。だからこそ、小林は彼にとっての「故郷」であり、原風景である朝鮮にたいする安直な郷愁を拒否したのである”(위키피디아 2013.12.29. 검색. <http://ja.wikipedia.org/wiki>

35) 齋藤孝(1984) 「小林勝と朝鮮一つの思いで」『季刊三千里』 p.14.

36) 하라 유스케(2011) 「그리움을 금하는 것 - 조선식민자2세 작가 고바야시 마사루와 조선에 대한 향수」『일본연구』15, p.328.

37) 고바야시는 자신의 문학의 출발점을 한국으로 송환되어가는 조선인들의 모습에

그리고 그러한 회한과 고뇌는 식민자들 가운데 가장 말단에서 조선인들과 접촉을 한, 그리고 의도한 바와 관계없이 조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일본인 중의 한사람으로서³⁸⁾ 느끼는 책임감이기도 했다. 고바야시에게 있어서 한사람은 한 개인이 아닌 일본인을 대표하는 일본인 전체였던 것이다.

4. 배중도와 고바야시 마사루와의 만남

말 그대로 조선을 위해 일생을 바치며 전후 일본에서 살아간 몇 안 되는 일본인 문학가였던³⁹⁾ 고바야시 마사루 문학의 최대 주제는 언제나 조선이었으며, 자신이 식민자 2세로서 사실상 군림하고 있던 식민지의 시대는 일본에서도 조선에서도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인식⁴⁰⁾이 항상 그의 문학의 근저에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비추어진 끝나지 않는 피식민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재일한인들이 지닌 엄청난 고통의 심연과 자신의 영혼의 깊은 곳에 강한 집념으로 도사리고 있을 차별의식을 끄집어내어 문학 안에서 그 추악한 실체를 형상화함으로서 그것을 무너뜨릴 현실의 길에 빛을 비추고자했다.

고바야시 마사루가 「나의 조선」에서 수차 강조했던 것처럼, 그의 조선과 조선인관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재일한인들과의 만남, 그리고 역사의 한 장면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하여 이어지는 그들의 고통, 그리고 일본인들의 내면에 뿌리 깊이 잠재하고 있는 식민자

서 '일본이라는 나라의 추악함, 착실히 강대해져가는 권력과 군사력, 그리고 조선인에 대한 態度가 조금도 바뀌지 않았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무지했으며 어떤 구원의 손길도 내밀지 못하는 자신의 무력에 대한 분노의 촉발을 받으며 글을 쓰는 작업을 계속해나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술회한다.(고바야시 마사루 지음, 이원희 옮김(2007) 「나의 조선」『쪽발이』 pp.311-312)

38) 고바야시 마사루 지음, 이원희 옮김(2007) 「이름 없는 기수들」『쪽발이』 pp.161-162.

39) 하라 유스케(2011) 전게서 p.312.

40) 하라 유스케(2011) 전게서 p.318.

로서의 의식과 피식민자에 대한 차별에 대한 자각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 - 일본의 지배계급에 의해 안보조약의 외연이 아시아 안보조약으로까지 확대되는- 아래 있는 한, 내가 미래의 이미지로서 그리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진정한 평등, 대등한 관계는 결코 실현될 수 없고, 일본인은 조선과 조선인에 대해 그 무거운 고뇌로 찬 과거와 현재로부터 해방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분한 것은, 재일조선인에 대한 현실적인 사회적 차별과 차별관은 부단히 재생산되고, 한편 조선인들의 괴롭고 굴절된 의식의 증오나 최악의 경우 비뚤어진 범죄등도 끊임없이 재생산된다는 점입니다. ... 나 자신의 생애를 걸어야만 할 중요한 테마의 하나로서, 일본에게 조선이란 어떤 존재였는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장래 어떤 존재여야만 하는가를 추구하는 것을 내 문학의 출발시기에 자신에게 명하고 그 길을 10여년 걸어왔습니다.⁴¹⁾

고바야시 마사루와 재일한인 디아스포라 2세인 배중도의 만남은 1966년 3월에 이루어졌다. 이때 고바야시는 2번째의 도쿄 구치소 수감에서 가석방된 후(1960년 1월), 폐결핵으로 입원과 수술을 거쳐 결핵연구소 부속요양원에 입원을 거듭하고 있던 시기로, 「눈 없는 머리」를 저술하던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눈 없는 머리」는 전후 일본에서의 조선 식민자2세와 재일한인들의 관계가 가장 다면적이고 집요하게 그려진 작품⁴²⁾으로, 식민지배의 소산인 재일한인들이 눈앞에 실재한다는 사실이 주인공 사와키(沢木)의 마음속에 그가 식민자2세로서 살았던 과거와, 그것과는 일견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전후 일본에서의 현재가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한편, 때로는 고바야시의 작품에서 다른 시대와 배경에서 동일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름 없는 기수들」에서 경상도 시골의 농림학교 교사인 혼도가 자신의 의도와는

41) 고바야시 마사루 지음, 이원희 옮김(2007) 「나의 조선」 『쪽발이』 pp.303-305.

42) 하라 유스케(原佑介)(2011) 전계서, p.318.

관계없이 반일운동의 주모자로 조선인학생 하차효를 퇴학당하게 하고, 그길로 마을을 떠난 하차효와의 관계는 단절된다. 그러나 「이름 없는 기수들」의 마지막에서 ‘그 뒤로 두 번 다시는 하차효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러나...’로 여운을 남기는 한편, 「눈 없는 머리」에서 주인공 사와키(沢木)의 이웃에 사는 하차효는 사할린의 탄광으로 강제연행되어 갔다가 1957년에 일본으로 온 재일한인이다. 그는 당시에 북조선으로는 돌아갈 수 있었지만 자신의 고향은 경북 선산이었으므로 사할린에서 만난 일본인여자와 결혼해서 일본으로 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하차효는 반일본인이 되느니 차라리 까막눈 조선인이 되는 편이 낫다면서 7세 아들 주남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이웃의 일본인 사와키와는 인사도 하지 않는 무뚝뚝하고 고집 센 남자이다. 고바야시가 두 개의 다른 작품에서 동명인물을 설정한 것은 역사의 연결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설정으로, 과거에서 그리고 역사적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서 현재의 ‘재일한인은 누구이며, 또 일본인인 자신은 누구인가’를 일본인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묻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고바야시는 1948년에 일본공산당에 입당하면서 신일본문학회의 활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1955년에는 신일본문학회에 입회하여 사무국원으로 활동하는데, 노마 히로시도 같은 학회의 상임위원을 역임하였다. 두 사람 다 일본 공산당에 입당하였으며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하였고, 조선인문제에 관심이 많았으며, 배중도가 두 사람을 만났던 곳이 ‘두 사람이 선생의 역할을 하던 동인지’라고 했던 점을 미루어볼 때 그 곳이 신일본문학회의 가능성이 높다.

당시의 배중도는 가난과 취업에 있어서의 민족적인 차별, 적성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직업을 위해 선택해야 했던 대학 등으로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에서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정체성에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갈등은 어릴 때부터의 경험에서부터 계속하여 이어진 것으로 소학교 때는 ‘하이 시게노리’, 중학교부터는 ‘타케모토 시게노리’, 그리고 대학에서는 잠시 민족명을 사용하다가 취업하면서 다시 ‘타케모토’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이름의 변화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혼란을 느끼고 있던 시기에 고바야시로부터 듣게 된 “너는 누구인가?” “자신과 마주 보아

야한다”라는 말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 말은 실은 고바야시 자신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되물었던 말들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자신의 문학작품에서 등장하는 많은 조선인들이 안고 있는 고뇌와 갈등을 그대로 가슴에 안고 방황하고 있는 한 젊은 조선인 청년에게 자신이 뼈저리게 느끼고 생각했던 말을 던졌고, 이때부터 배중도는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사실과 마주서기를 시작한다. 자신이 일본에서 존재하게 된 이유를 역사서를 뒤져서 알게 되고, 일본에서의 자신들의 법적인 지위가 의미하는 바도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된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된 민족운동은 자신의 이름을 한국식 발음 그대로 ‘배중도’로 부르면서 ‘민족차별과 투쟁하는 연락협의회(民族差別と闘う連絡, 協議会)’의 창설(1974년)에 참가, ‘재일한국인문제연구소’ 창설에 이어 사회복지법인 청구사(靑丘社)의 설립 주도, 가와사키시(川崎市) 후레아이관(ふれあい館)의 설립주도 및 관장을 역임하면서 재일한인의 인권과 권리를 수호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⁴³⁾ 배중도의 회상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도망치고 싶고, 외면하고 싶었던 조선인이라는 자신의 존재를 정면으로 마주보게 되는 계기가 고바야시와의 만남이었고, 오랫동안 끊임없이 조선인에 대한 부채의식을 짊어지고 있던 식민자 2세에 의하여 피식민지민 2세의 새로운 자아 찾기가 시작된 것이다.

5. 마무리

재일한인 디아스포라 2세 배중도에게 있어서의 민족의 의미는 어린 시절에는 가난으로 인한 주변으로 부터의 차별로 놀림을 받게 하는 요인이었으며, 소년기에는 노동시장의 황금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할 수 없어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막노동판을 전전하는

43) 배중도는 재일한인뿐만 아니라 지역거주 소수자의 인권운동에 앞장 서 온 공로를 인정받아 1994년에 요미우리 교육상을, 2004년에 가나가와 문화상을 수상 받았으며,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조현미·이현철(2013) 『민족운동가 배중도의 내러티브를 통한 재일한인 1세대 디아스포라의 삶과 애환』 『일본어문학』 61 pp.611-612 참고).

경험을 하게 만들었고, 모국에 대한 귀속의식에도 불구하고 좌파와 우파, 남한과 북한으로 갈려 분열하고 있고, 대학을 나와도 자신의 기술이 없으면 번듯한 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를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민족의 대명사가 '조센징'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조센징'은 벗어날 수 없는 굴레로서 진한 공동체의식을 공유하는 집단임과 동시에 그 명칭만으로도 차별의 대상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그는 '배'의 일본식 발음인 '하이'를 사용함에도 거부감이 없었고, 더 나아가 '타케모토'로서의 삶을 살아가야함을 어쩔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갔다. 자신이 '조센징'이라는 사실은 항상 자신의 어깨에 드리워진 거부할 수 없는 숙명이었던 것이다.

고바야시 마사루는 '조선인을 마주 볼 때에 자신이 일본을 대표하는 자 일 수밖에 없다는 절실한 실감'으로⁴⁴⁾ 살아왔던 식민자 2세 작가로서, 그 실감이 그의 작품들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식민지의 주민들과 평화적 관계를 맺으며 공존하는 식민자는 존재할 수 없으며, 식민자는 그 본질에서 절대적으로 일본제국주의의 적극적 추진자일 수밖에 없었다.⁴⁵⁾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식민자에는 식민지에서 태어나 어린시절만을 그곳에서 보낸 자들도 포함되었다. 그러기에 그는 전후에 식민자 2세로서의 자기 존재의 근본까지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식민지와 일본의 관계를 다시 모색하려 했고, 고지식할 정도로 식민지조선과 그 역사적 잔재에 책임감을 가지고 몰두했다. 고바야시의 작품 속에 그려진 식민지 시대 조선인들은 친일이나 창씨개명, 식민자에 대한 복종 아래 감추어진 뿌리 깊은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해방 후의 재일조선인들은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사회적 차별과 차별관으로 인하여 괴롭고 굴절된 의식의 삶을 살고 있었다. 특히 재일조선인이 지닌 고통의 심연을 마주하면서 일본과 조선, 일본인과 조선인 - 이것을 현실의 다양한 전개와 밀착시키면서 자신을 해방시켜 진정으로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투시해나가는 작업, 과거를

44) 하라 유스케(2011) 전게서, p.328.

45) 하라 유스케(2011) 전게서, p.330.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점에 서서 거기서부터 미래를 전망하고자 하는 것⁴⁶⁾이 고바야시가 글을 쓰는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것이다.

고바야시가 끊임없이 되뇌었던 ‘내게 조선이란 무엇인가?’라는 명제는 ‘식민자 2세인 나는 누구인가’와 직결한다. 그리고 그는 한인 디아스포라 2세로서 방황하는 청년과의 대면에서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명제를 다시 돌려준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명제는 ‘나는 나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가’로 이어진다. 그의 눈에 비쳤던 식민지 조선의 조선인들이 사용했던 일본어 이름은 그들의 실체가 아니라 허상이었고, 그 허상은 외압에 의해 강제된 것이었다. 그런데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인 외압은 조선인들을 하나의 허상으로서 ‘조센징’으로 묶어버렸고, 일본에는 그 허상에 가려져 실체를 찾기를 두려워하는 재일한인이 존재하고 있었다.

김춘수 시인은 「꽃」이라는 시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노래하였다. 그 이전에도 하나의 몸짓으로 존재하고 있던 실체가 내가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꽃이 되었다는 것이다. 꽃이라는 이름은 사물의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꽃이라 이름지워짐으로써 그 이름만으로 꽃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향기를 떠올리게 한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렇게 실체를 기술하는 동시에 만들어내는 것이다.⁴⁷⁾ 그런 의미에서 ‘조센징’이라는 것은 식민자에 의해 자신들이 지배하는 국가의 열등하고 무능하면서 불결한 민족이라는 실체에게 부여한 명칭으로서, 이 명칭만으로도 식민지 조선인들에 관한 총체적인 이미지를 연상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다.

라캉(Jacques Lacan)과 같은 심리학자들은 마음 속 깊이 자리한 희망과 두려움이 외적인 목표에 전이되는 것을 투사(投射)라고

46) 고바야시 마사루 지음, 이원희 옮김(2007) 「나의 조선」 『쪽발이』 pp.303-307.

47) 도널드 K. 에머슨(1998) 「동남아시아, 이름의 유래와 역사」 『지역연구의 역사와 이론』 p.89.

부른다. 투사는 사이드가 말한 '유럽인의 마음 속 깊은 곳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타인의 이미지'⁴⁸⁾이고, 키에르 난(V. G. Kiernan)의 표현을 빌리면 '피지배자를 나쁘게 생각함으로서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⁴⁹⁾ 그렇게 볼 때 일본인이 부여한 조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의 투사로서 만들어진 '조센징'이라는 명칭에는 식민자로서의 일본인이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오히려 식민지민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으며,⁵⁰⁾ 그 속에는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피지배자에 대한 무의식적인 불안감과 공포가 내재되어 있다고 하겠다.

'조센징'이 조선인의 부정적 이미지의 총체로서 표명되는 명칭이라고 한다면, 창씨개명하여 일본이름으로 불리는 조선인은 그 실체를 전혀 알 수 없는 허상이다. 그러기에 고바야시는 그의 작품을 통하여 일본이름으로 부르는 조선인에게서 실재하지 않는 인간을 향해 부르는 듯한 허탈감을 느낀다고 하였고, 실제로 해방 후에 그가 만난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식민자의 입장에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역사의 무게를 느끼면서 허상을 벗어버리고 본연의 자아를 찾아갈 것을 권유한다. 민족으로 인하여 방황하고 갈등하던 배중도가 그 후 민족의 뿌리와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을 거듭하고, 그 결과 '하이 시게노리'가 아닌 '배중도'로서의 삶으로 전환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고바야시 마사루가 미친 영향은 지대하며, 배중도와 같은 조선인들과의 만남이 고바야시에 게도 '나는 누구이며 조선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되뇌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던 것이다.

48) 이는 에드워드 사이드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럽인의 눈에 비친 열등한 동양인의 이미지가 내포된, 유럽인이 상상하는 동양을 의미하는 '오리엔탈리즘'인 것이다.

49) 이옥순(2002) 『우리안의 오리엔탈리즘』 p.26.

50) 이는 호미 바바(Homi Bhabha)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종적/문화적/역사적 차이들을 인정하면서 부정하게 하는 장치로서의 '식민지담론'으로서, 똑같이 정형화되어 있지만 서로 정반대로 평가되는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지식들을 생산함으로써 그 전략을 권위화하려 시도하는 것이다. 식민지담론의 목적은 정복을 정당화하고 관리와 훈육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피식민자를 근본적기원의 기준에서 퇴보한 유형의 민중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이원희 옮김, 고바야시 마사루 지음(2007) 『쪽발이』 도서출판 소화, pp.41-50, p.116, p.137, pp.161-162, pp.303-318.
- 도널드 K. 에머슨(1998) 「동남아시아, 이름의 유래와 역사」 김경일 『지역연구의 역사와 이론』 문화과학사, pp.89-129.
- 이옥순(2002) 『우리안의 오리엔탈리즘』 푸른역사, p.26, p.33, p.230.
- 이원희(2001) 「고바야시 마사루 문학에 나타난 식민지 조선」 『일어일문학연구』38, 한국일어일문학회, p.230.
- 조현미·이현철(2013) 「민족운동가 배중도의 내러티브를 통한 재일한인 1세대 디아스포라의 삶과 애환」 『일본어문학』61, 일본어문학회, pp.611-624.
- 최준호(2011) 「고바야시 마사루의 식민지 조선 인식」 『일본어문학』48, 일본어문학회, pp.139-156.
- 황익구(2010) 「記憶をめぐる心理戦—野間宏「顔の中の赤い月」論」 『일어일문학연구』72(2), 한국일어일문학회, pp.167-187.
- 하라 유스케(原佑介)(2011) 「그리움을 금하는 것—조선식민자2세 작가 고바야시 마사루와 조선에 대한 향수」 『일본연구』15,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pp.311-332.
- _____(2012), 「고바야시 마사루와 최규하」 『사이間SAI』12, 국제한국문화학회, pp.137-166.
- 호미 바바 지음, 나병철 옮김(2005) 『문화의 위치—탈식민주의 문화이론』 소명출판, p.488.
- 磯貝治良(1982) 「原風景としての朝鮮」 『季刊三千里』29, 国学資料院, pp.207-217.
- 斎藤孝(1984) 「小林勝と朝鮮—一つの思いで」 『季刊三千里』 国学資料院, pp.14-17.
- 曹賢美(1998) 『在日韓国・朝鮮人の集住地域の形成と実態』 お茶の水女子大学博士論文, p.215.
- <http://ja.wikipedia.org> (위키피디아 2013.12.28. 검색)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19897&cid=829&categoryId=829> (한국근현대사사전, 2013.12.29. 검색)
- <http://ja.wikipedia.org/wiki> (위키피디아 2013.12.29. 검색)

552 日本語文學 第 64 輯

성명(한글) : 조 현 미

(한자) : 曹 賢 美

(영문) : Jo, Hyun-Mi

논문영어제목 : The Change of National Identity of Second
Generation Diaspora 'Bae Jung-Do' and Colonist
'Kobayashi Masaru'

소속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부교수

E-mail : hmjo@knu.ac.kr

투 고 일 : 2014년 1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1월 13일

심사완료일 : 2014년 2월 4일